

'남도시' 읊는 재즈·청소년과 즐기는 클래식



11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행사 다채

광산문화회관 신형철 포엠편서트
연극 '청실홍실' 을 마지막 공연
문화전당 4개 전시 반값 할인

11월 '문화가 있는 날'(29일)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린다.

광주 광산구와 광주국악방송 '주홍의 무릎길산책'(매일 오후 7시~7시30분)은 11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기획으로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회관에서 신형철 포엠편서트 '시(詩), 재즈로 읊다'를 진행한다.

이날 공개방송에서는 문학평론가 신형철(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과 함께 호남의 서정과 정신을 담은 시와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또 대금·소금 연주자 한충은이 이끄는 국악밴드 '한충은 & Forest'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퓨전재즈밴드 'The Blue Years'의 음악이 함께한다.

이날 공연 실황은 오는 12월 1일 방송할 예정이다. 광주국악방송은 광주 FM99.3MHz를 비롯해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딩더쿵 플레이어'를 내려받아 청취가능하다. 문의 062-602-9310.

유·스퀘어는 오후 5시30분 유·스퀘어 실내광장에서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한뼘클래식'과 함께한다. '한뼘클래식'은 현악, 관악, 성악, 피아노 등 여러 가지 음악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아이들과 소통하며 재능을 나누는 예술단체다.

소프라노 이승희 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소스타코비치 왈츠', '울게하소서',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공연 시 응모함에 담긴 명함을 추첨해 동산아트홀, 금호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 초대권을 증정하는 명함이벤트도 실시한다. 문의 062-360-



국악밴드 '한충은&Forest'



신형철 문학평론가



소프라노 이승희

8431.

광주민들레 소극장에서는 극단 '토박이'의 연극 '청실홍실'(오후 7시30분)이 공연된다. 고(故)박효선 원작, 박정운 연출의 '청실홍실'은 광주민중항쟁 오월 레퍼토리 공연으로 올해 마지막 무대다. 전석 1만원, 문의 062-222-6280.

그밖에 상무지구 기본장은 극장에서 공연중인 연극 '운빨 로맨스'는 전석 1만 8000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남광주역에서는 오후 4시 부터 이진우(음악), 깨비매지(미술), 아따(퓨전국악)가 참여하는 '청춘

마이크' 행사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통합 패키지 티켓을 50% 할인된 가격(3500원)에 구입해 관람할 수 있다. 토마스 사라세노의 '행성 그 사이의 우리', ACC 창작 공간 네트워크 전시 'Urban Implosion-아시아의 도시들',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 제 3장-나의, 당신의, 우리의 것 : 경계와 영토, 그리고 연합', '달의 이면' 전 등 모두 4개의 전시를 만날 수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우제길 미술관(062-224-6601)은 '큐레이터·에듀케이터 해설이 있는 미술관' 11월 행사로 '미술가가 사랑한 음악'을 진행하며 국운미술관(062-232-7335) 미술관 소장품 감상과 해설 프로그램 '국운인사이드&시각이랑 문해랑'을 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하정웅미술관에서는 영화 '이중섭의 아내'를 무료 상영(오후 4시30분)한다. 또 국립광주박물관(062-570-7053)은 오후 7시 '광주 전남의 선사·고대문화'를 주제로 '큐레이터와의 만남' 시간을 진행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학관 건립 염원 담은 '광주문학 가을호'

광주문인협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 지역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광주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학관 건립을 위해 지역 문학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는 가운데 광주문인협회(회장 임원식)에서 발행하는 '광주문학'(가을호·84호)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집 I으로 다룬 '광주문학관'에서는 '추진위원회 제1차 간담회', '추진위원회 제2차 간담회', '언론에 비친 문학관', 각종 기고문 등이 실려 있어 올 한해의 활동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돼 있다.

특집 II에서는 '시가 있는 문학공원'을 다뤘다. 이윤대 씨가 '풍암호수공원' 산책로에 조성된 손광은 시인의 '기다림', 전원범 시인의 '구절초만 종종거리며' 등의 시화(詩畵) 작품을 정갈한 문체로 소개했다.

특집 III '명작산책'에서는 문순태 '징소리'를 수록했다. 1978년 '청작과비평'(겨울호)에 실린 '징소리'는 문순태 작가의 대표작이자 한의 정서를 미학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김광, 박원자, 위무량 등 시인들의 작품과 강종석, 노창수, 서연경 등 시조시인들의 작품이 실렸다.

강경삼, 노남진 시인 등의 동시와 양인숙 동화작가의 동화도 수록돼 있다. 또한 강원규, 임이택, 황일봉 수필가 등의 수필, 최문경 작가의 소설도 볼 수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3200명 시민들의 촉구까지 서명서를 광주시에 전달하는 등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학관 문제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과거 잡음을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인사는 문학관 관련 문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또한 추진위원들은 "윤 시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광주시가 문단의 한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성도 없는 특정인을 위한 조건 달기가 마친가"라고 비판했다.

오랫동안 문학관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월의 묵은 때 팍팍 밀어 드립니다

연극 '목욕탕 블루스' 29일~12월2일 광주 '예술극장 통'

휴먼 코미디극 '목욕탕 블루스' 공연이 오는 29일~12월 1일 오후 7시30분, 12월2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호남동 예술극장 통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2017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희망문화협동조합(이사장 임준형)이 '목욕탕'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릴 적 동네 목욕탕의 옛 추억과 가족의 사랑, 소중한 주변 지인들을 다시 한번 돌아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했다.

연극은 동네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메마른 영혼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주는 '희망목욕탕'을 배경으로 한다. 연극에는 이곳에서 40년 동

안 세신사로 일해온 규만과 세신 쫄나무 영호가 등장한다. 속옷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어깨의 문신만 믿고 자장면을 시켜달라는 사람, 돌아가신 부친과의 추억을 그리는 사람 등 저마다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그러던 중 세신사 규만의 사연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희망목욕탕이 위기를 맞게 된다.

연출 이행원, 프로듀서 김승주, 기획 백형률이 참여했으며 한준근, 오설균, 정이형, 임준형, 김주열 등이 출연한다. 이밖에 김옥명, 천성민이 특별출연한다. 관람료 1인 2만 원, 2인 2만 원. 문의 010-3615-948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폴리 30개 이정표 다시보기' 30일 국제워크숍

쇠퇴해져가는 구도심을 소형 건축물인 '폴리(Folly)'로 재생하기 위한 '광주폴리 프로젝트'가 올해 3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광주폴리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와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폴리, 문화도시 서른 개의 이정표 : 다시 & 미리보기'를 주제로 한 광주폴리 국제워크숍을 30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층 거시기술에서 개최한다.

기조발언은 '도시와 건축, 그리고 시적 감수성'을

주제로 이용우 상하이 프로젝트 예술감독이 맡았다.

각 색선별 발제는 광주폴리 I 총감독인 승효상 건축가의 광주폴리 시작 배경이 담긴 '광주폴리를 시작하며' 영상 메시지에 이어 김영준 광주폴리 I 큐레이터의 '광주폴리(마스터플랜에서 광주읍성까지)', 니콜라우스 히르쉬 광주폴리 II 총감독의 '인권과 공공공간' 영상 메시지, 천의영 광주폴리 III 총감독의 '도시의 일상성, 맛과 멋'의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또 광주폴리 III 참여작가인 독일 리얼리티즈 유나이티드의 안 에들러 & 팀 에들러조병수 건축가가 참여해 각각 '뷰폴리+설치작품 '자율건축', '꿈 집'의 작품세계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에는 류영국(폴리시민협의회 위원), 박성태(2018비엔날레날레 국제건축전 예술감독) 등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지난 8월 준공된 광주폴리 III의 뷰폴리와 GD폴리 투어가 진행된다. 서석조 앞 '아이러브스트리트' 작품을 활용한 소공연과 뷰폴리에서 나히덕 시인의 시콘서트 '서른 세 개의 동사들 사이에서'가 열린다. 문의 062-608-42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속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명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